

中 CXMT 몸집 키워도... 삼성전자, AI 메모리 우위 부각

CXMT 점유율 7.67%로 확대
295억위안 상장자금 조달 추진

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5% 1위
HBM4 품질 테스트 첫 통과

범용 D램 공급 확대는 변수
가격 결정력 유지 여부 주목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중국 최대 D램 업체 CXMT의 몸집 키우기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의 추격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등 선두 업체의 지배력을 흔들기보다, 고성능 인공지능(AI) 메모리 분야에서의 기술 우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분석도 나온다.

11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CXMT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분기 3.97%에서 4분기 7.67%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여기에 상하이 커황판(기술주 중심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약 295억위안의 자금을 조달하며 D램 기술 고도화와 첨단 공정 연구개발(R&D)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CXMT의

부상이 글로벌 메모리 시장 경쟁 심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고성능 AI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기존 3사의 기술 우위가 여전한 만큼 이번 상황이 오히려 선두 업체들의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CXMT의 상장이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

과 대규모 자본 투입을 바탕으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저전력다블데이터레이트(LPDDR)5 등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의 기술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 시장 성과 역시 삼성전자의 경쟁 우위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

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점유율 38.5%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D램 매출 또한 전 분기 대비 95.4% 증가한 374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 메모리 3사 가운데 가장 큰 평균판매단가(ASP) 상승 효과를 누린 데다 고부가가치인 서버용 D램 매출 비중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 만드는 고부가가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는 지난 2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1위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될 6세대 HBM4 제품의 품질 승인 테스트를 업계 최초로 통과하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범용 D램 분야에서도 삼성전자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주요 D램 생산 거점인 경기 화성과 평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신 공정 전환에 속도를 내며 원가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 우려와 달리, 외신 등에 따르면 CXMT의 DDR5 메모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3사

제품과 유사한 가격대에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CXMT의 강점이 가격 경쟁력이 아닌 공급 능력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와 SOCAM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비중이 낮은 만큼 일반 D램 물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CXMT의 기술 공정 수준이 아직 글로벌 선두 업체 대비 부족한 만큼, 단기내 시장 판도를 뒤 흔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는 가운데 범용 D램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XMT가 단기내 HBM 등 고부가가치 AI 메모리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을 위협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범용 D램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메모리 업계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美 물가 4%대 재진입...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더 멀어져

5월 CPI 4.2%, 에너지가けん 상승분 60% 이상 에너지 영향
근원 CPI 안정에 인상론 제한
FOMC 점도표 경계감 확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4%대에 다시 올라서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멀어지고 있다. 근원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면서 즉각적인 인상론은 제한됐지만,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점도표와 달러·환율 경로를 둘러싼 경계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2% 오르며 지난 4월 3.8%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20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물가를 끌어 올린 주된 요인은 에너지였다. 5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3.9% 상승했다. BLS는 에너지가 월간 CPI 상승분의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새 7.0% 뛰었다. 중동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부담이 소비자물가에 빠르게 반영된 셈이다.

다만 물가압력이 전방위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9% 상승했다. 4월 근원 CPI가 전월 대

비 상승률이 0.4%였던 점을 감안하면 흐름은 오히려 낮아졌다. 에너지발 물가 충격이 아직 서비스와 상품 전반으로 번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시장 반응도 급격한 건축 재가속보다는 관망에 가까웠다. 로이터에 따르면 CPI 발표 이후 달러인덱스는 0.2% 내린 99.81을 나타냈다. 미 국제 2년물 금리는 1bp(0.01%포인트) 하락한 4.11%, 10년물 금리는 4.52%로 보험권에 머물렀다. 헤드라인 물가가 3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지만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했고, 근원 물가 가속 우려가 일부 완화된 영향이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난 것은 아니다. 헤드라인 CPI가 4%를

넘어선 데다 연준의 물가 목표인 2%와의 격차도 여전히 크다. 물가가 에너지 중심으로 올랐다고 해도 고유가가 길어질 경우 운송비와 항공료, 공공요금, 서비스가격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장의 시선은 다음 주 FOMC로 옮겨가고 있다. 연준은 현지시간 16~17일 FOMC를 열고 기준금리와 함께 경제전망, 점도표를 발표한다. 이번 CPI가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더라도 헤드라인 물가가 4%대로 올라선 만큼, 올해 금리 경로와 물가 전망이 얼마나 조정될지가 관건이다.

미국 물가 불안은 한국에도 변수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 미 국제금리와 달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 압

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원화가 1500원대에서 큰 변동성을 보인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경로는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부담이다. 국내 역시 물가와 환율 부담이 남아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로 올라섰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60원선을 넘어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시장 점검을 불렀다.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미국 물가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검토하기 더 어려워진다.

미국 CPI는 연준의 즉각적인 인상론을 키운 지표는 아니지만, 인하 기대를 되살릴 만한 지표도 아니었다. 에너지발 물가 충격이 근원 물가로 번질지, FOMC 점도표가 얼마나 때파적(통화긴축 정책 선호)으로 바뀔지가 한국의 환율과 금리 경로까지 좌우할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자산도 소득도 벌어진다... 韓 경제 '복합 양극화' 경고등

집값 상승에 자산격차 고착
AI·산업 격차가 소득차 자극
청년·무주택층 자산 형성 난항

우리 경제가 자산격차와 소득격차가 동시에 벌어지는 '복합 양극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고착화된 가운데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간 성장 격차가 소득 양극화까지 키우면서 청년·무주택층의 경제 내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11일 한국은행 연구진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5년 0.625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 집값이 벌린 자산격차

연구진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산 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팬데믹 기간 급등한 주택가격이 일시 조정되다 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부동산 보유 가구와 미보유 가구 간 순자산 격차가 확대됐다는 것. 자산 격차는 세대 간 격차로도 굳어지고 있다.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된 데다 고령층 내 자산 격차도 커지면서 '자산의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은 소득을 쌓아도 부동산 등 자산을 확보하지 못해 상위 자산계층으로 이동하기 어려워졌다.

실제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1분위인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크게 늘었다. 연구진은 고소득임에도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청년층, 이른바 '헨리(HENRY·High Ea

mers, Not Rich Yet) 현상'이 국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소득격차 재확대 조짐

소득 격차도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지니계수는 지난 2016년 0.353에서 2023년 0.323까지 하락했지만 2024년 0.325로 소폭 반등했다. 연구진은 IT 제조업 호조와 여타 부문의 성장 정체에 대비되는 K자형 성장 흐름이 산업 간 소득 격차를 키우고 있다고 봤다. AI 확산도 소득 양극화를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AI 기술이 저소득층과 경력 초기 단계 청년층의 직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기술 활용에 따른 혜택은 고소득·고숙련 계층에 더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형 기자



삼성전자, 생성형 AI로 AX 전환 속도

▶▶ 1면 '샘 올트먼 방한... '서 계속

최근 삼성전자가 챗GPT와 구글 제미니, 엔트ropic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DX 부문에 공식 도입한 가운데, AI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 AI 기반 업무 혁신 전략을 주제로 임직원 대상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12일부터 DX부문 임직원에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며 전사적인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사가 생성형 AI를 업무 환경에 접목하는 삼성전자의 AX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네이버 방문 가능성도 관심사다. 업계에서는 올트먼 CEO가 이번 방한 기간 중 네이버 경영진과 만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젠스 환 엔비디아 CEO와 만나 AI 팩토리과 풀스택 AI 인프라 협력을 공식화하는 등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역량을 바탕으로 AI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오픈AI와의 접점이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당시 올트먼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오픈AI와 국내 빅테크·반도체 기업 간 AI 협력 관계가 한층 구체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